

이상에서 시작하는 통쾌한 반란



6대 톡큰/웃음 총여학생회와 함께하는 여우(女友)들

이상에서 시작하는 통쾌한 반란



6대 톡/큰/웃/음 총어학생회와 함께하는 어우(女友)들

영양대 동아리 '증권 연구회' 가입



영양대 동아리 '증권 연구회' 가입

김김도경 '도광'

- 1978년 전라남도 광주 출생
- 1997년 광주중앙여고 졸업
- 1997년 아주대 경영학부 입학
- 경영대 동아리 '증권 연구회' 가입
- 1998년 '증권 연구회' 총무
- 1999년 5대 총여학생회 선전·사무국장
- 메이데이 기획단 여왕 참가주체
- 경기남부 여성연대 모임 단위주체
- 6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 입후보



일상에서 시작하는 통쾌한 반란!



조최효정 '파삭'

- 부산광역시 출생 1978년
- 동아방송전문대 영상제작과 입학 1997년
- 동아방송전문대 영상제작과 졸업 1998년
- 아주대 인문학부 편입 1999년
- 인문학부소학회 영어원어연극반 활동
- 5대 총여학생회 '성폭력 근절주간' 도우미
- 6대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 입후보

도깡의 이야기 ...

난 흔히들 말하는 엄격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이고 막내라는 이유로 어른의 말에 대꾸하는 것은 건방진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때때로 친구 집에서 잘 수도 있는 오빠와 달리, 여자는 집밖에서 자면 안 된다는 이유로 수학여행이외에는 길 건너 친구 집에서 자는 것조차 허락 받지 못했습니다.

수원으로 진학을 하면서 집에서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나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큰 웃음소리는 '여자가 칠칠맞다'로, 술자리를 좋아하지만 남자선배에게 술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자가 유별나네'로, 친구에 대한 친밀함의 표현에 대해서는 '여자가 험프네'로, 여러 일에서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으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여자가 날뛰네'로 얘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려는 나름의 노력이 '튀는 애=이상한 애'로 여겨진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

위 고민해보기도 했고 남들처럼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해 머리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웃을 때도 조심하고, 술자리에서도,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꼭 이래야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에 맞추어 이상한 애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남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남들을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행동의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싶습니다. 난 남들과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당당하게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이상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2000년, 여성임을 긍정
그런 통쾌한**

빠삭의 이야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고민들의 끝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태어나서, 사춘기를 지나고, 사랑하는 시절을 지나면서, 사회인이 되고, 결혼해 아내와 어머니란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매순간순간 빠져 나오는 그 고민들은 바로 '여성'이란 단어에서 출발한단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라서 좋다'고 우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술자리든 어디든 여성을 배회시키거나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라면 목소리를 낼 줄 몰랐습니다. 마치 모든 남성이 나의 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나는 '여성이라서 좋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여성은 피해자다'라고

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장은 근거 없는 우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공부하던 중에 '여성주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피해자면 남성도 피해자다. 답답하면서도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성인 나를 위해 싸우는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



**하며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차별 받는 성. 차별 받는 모든 존재를 위해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세상에 대항하는 작은 힘이 되고자 합니다.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나의 노력이 당장 내일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조차 곧 휴지통으로 버려질 종이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애초에 세상은 휴지통에 하나 둘 구겨진 글들이 쌓여가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 시작이 여성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여성주의가, 여성임을 긍정하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장애인이든 간에 차별 받는 당신. 차별 하는 세상 속에서 있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일상에서의 전쟁: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새 천년은 여성의 시대'. 아님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매일 보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평등한 부부관계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이며, 여성을 위한 법까지 생겨났다.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여성'을 주제로 한 것들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얼마 전 제정된 '가정폭력 금지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측면에서 가히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사회 전반의 여성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남녀 차별은 미성숙한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광고문구처럼, 성차별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을 점잖게 충고하고 있다. 이제 가부장적,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시대에 뒤떨어진'의 의미로 읽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그럴까? 법률 제정이나, 멋진 커리어 우먼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양성평등은 모두 완결된 것일까?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의 이면에는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선 해고된 많은 여성들이 있다. 이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터로 나가게 되면서 이중으로 일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 축소로 인해 공적영역에서 담보되어야 할 양육, 보살핌 노동 등의 재생산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 또한 '여성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다.

동시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순결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성에 대해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 없게 하며, 모성신화는 어머니의 희생과 인내를 곧 모성 또는 본능과 동일시하여, 여성에게 일방적 인내, 희생을 강요한다. 국가경제가 어려워 질 수록 모성신화는 더욱 강고해졌다. 보라, 오로지 죽은 남편과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던 육남매의 엄마와 남편의 바람으로 지지리 고생을 했으면서도 남편을 믿는다고 외치는 엄앵란 아줌마들!

대학 내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는 극에 달했고, 여자는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식의, 남자라면 한 번쯤은 등의 성역할 고정

관념은 되짚어 볼 겨를도 없이 우리의 일상을 점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성차별, 가부장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끝나버린 20세기의 낡은 이야기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여성상위시대라고도 하고, 기죽은 남성들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외침도 드높다. 2000년 희망적인 메시지는 철저히 현실을 외면하고서 새 역사를 평등하게 그려가자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에게 억압의 기제는 여전히 일상적이며, 그 자체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내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동기로

취급받지 못하고 '꽃'이 되고 마는 것은 단지 나의 처신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 개인이 아무리 '조신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술자리의 '꽃'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여성이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자기 결정권과 여성권을 획득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일상, 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순의 현장에서 우리가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반란을 조직하자! 세기말과 새 천년의 그 아수라장에서.

다시 성차별을 이야기하자!

우리학교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성폭력 근절'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라는 의심이 생긴다. 학칙 제정을 통한 성폭력 예방이나 학생들의 인식변화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대학환경의 개선이란 측면으로 학칙을 팔아먹고 있다. 혹시나 해도 역시나 이듯이 학칙제정은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이었고, 덕분에 아주대의 성차별적인 문화는 아무 탈 없이 전승될 수 있었다.

여학우들의 수적인 증가는 머리 수 증가만의 의미가 아니라 대학공간이 그녀들의 공간이 됨을 의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 동안 대학은 여학생을 초대했을 뿐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데는 인색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여학생의 수적 증가에 대한 대학사회의 반응이 그 이중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유능한 남학생은 '재목'으로 보지만

여학생은 아무리 유능해도 투자가치가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만 보아도 이것은 쉽게 드러난다.

남학생이 많은 환경에서 여학생들이 설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다른 학교들은 여학생 휴게실을 속속 설치하고 있는 데, 이미 존재하고있는 여학생 휴게실마저도 공간부족을 이유로 용도전환을 요구해오는 것이 아주대의 현실이다. 학교 당국이나 교수님들만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교내에서 달혀진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여학우들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학우가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대학원생에게 뺨을 맞는 일은 올해에도 일어났다. 여자가 건방지게 학내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맞는데 말려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는 사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것이 담배만의 문제라면 차라리 달가울 지도 모르겠다. 담배는 여자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금지된

것들의 시작일 뿐이다. 요즈음 입사원서를 들고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우리의 선배들을 한번 보자. 그들이 학교에서 도움 받는 것이 있는지. 알아서 열심히 뛰어 원서 하나라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에브리thing 아님 공부를 정말 잘하던가" 라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는 언니들,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전공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자는 안 뽑는 곳이 아니면 여자라서 뽑는 특수한 직종들 뿐.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다. 더 이상 대기업이나 잘나가는 커리어우먼에 대한 꿈같은 건 꾸지도 않는다. 단지 취직만, 정규직이 아닌 인턴사원이라도,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보수를 준대도 뽑히기만을 바라는 우리에게, 대학은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시선으로 대학을 바라보자. 우리는 남학생의 돌리리가 아니다. 필기를 복사해주려 대학에 오지도 않았다.

'대학생=남대생'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대학생이다. 우리가 대학의 주인이다.

일상의 정치, 그 시작을 위한 통큰 반란들..



제 일상에서 내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자. 술자리에서 남자 선배들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라는 뭔가 찝찝한 농담을, 강의시간에 교수님들은 "여자는 시집이나 가라"는 말속에서부터 우리는 일상의 정치를 시작해 보자. 또 기숙사에서 왜 여학생들만 점호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궁금증에서 일상에서의 여성차별 문제를 시작하자.

우리는 매일 이 강의실에서 저 강의실로 수업을 받으러 다닌다. 화장실도 하루에 몇 번쯤은 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끔 이용하게 되는 생리대 자판기를 보게된다. 자판기는 있으니까 그냥 사용한다. 하지만 자판기는 편리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생리대 자판기와 커피 자판기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커피는 마시고 싶을 때 뽑아 마시면 되지만 생리는? 생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원치 않지만 비싼 돈주고 생리대를 사야한다. 우스개 소리로 들리겠지만 "가난한 년은 생리도 못해"라는 말이 뼈저리게 와 닿는 게 나만은 아닐 것이다.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오면 군가산점을 받아 입직과정상에서 혜택을 받는다. 여성이 생리를 한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원을 재생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군가산점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생리대 무상공급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임신과 군대를 비교하면서 출산한 여성은 가산점은 커녕 원서도 내기 힘든 것은 왜인가?

혹은 밤늦은 시간에 기숙사를 올라가다 혹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으스스한 길을 걸을 때 내가 특별히 이빠서도, 내가 입은 옷이 야한것도 아닌데 괜히 공포스러운 것은 왜일까? 뒤에서 남자신발 소리만 들린다 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음부터는 일찍 다녀야지

군가산점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생리대 무상공급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게된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공주병에 걸렸거나 밤눈이 어두워서만은 아니다. 이 사회는 우리를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닐 수 없게 했으며, 내 마음대로 옷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아갔다. 밤늦은 시간 외진 곳에서 성폭력을 당하면 "밤늦게 여자 혼자서 거길 왜가", 짧은 치마를 입고가다가 성폭력을 당하면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당하지"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생각이다. 피해자가 화를 자초한 듯 바라보는 시선, 드럽다. 집에 일찍 들어가고 말지 싶을 때가 많다.

"왜 취업이 안될까?". 많은 여학생들이 했고, 언젠가는 하게 될 고민이다. 토익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아서 나만이라도 취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나는 취업이 될 지 몰라도 내 친구, 또는 후배, 아니면 내 딸이 이다음에 커서 똑같은 고민을 하게된다면? 토익점수 몇 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다같이 취직할 수 있게, 사회구조적인 모순은 해결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당당히 요구해야 것이다. 여성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달라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지금껏 우리는 나 혼자만의 일,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 그런 생각은 버리자.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연대, 그 힘찬 발걸음



반란신호 하아!

총여학생회,

그 단절과 재구성



여학생회... 총여학생회의 활동과 사업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그것은 매해 총여학생회 선거를 치르면서 나오는 질문이었으며, 사업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타의 대화 속에서 빠지지 않던 물음. 총여학생회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펼쳐야 하는가?

이는 총여학생회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지향을 묻는 것이기에 꽤 오랫동안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매번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지향이 같을 수 없고, 고정화된 대답들로 일관시킬 수 없기에 총여학생회의 공간은 매해 매시기 정세와 학내 상황 속에서 새롭게 재 정의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총여학생회는 여학우에 기반한 대중자치기구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남성중심의 대학사회,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회 공간 속에서 여성의 가치와 입장을 대변하는, 여성문제의 인식확장과 여성차별의 과제를 학내에서 풀어나가는 공식적인 여성학우대중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전체 학우대중을 대상으로 한 여성문제, 여성주의 가치를 통한 여성차별의 전복에 대한 담론으로 대학사회를 재구성하는 지향을 가져야 하며, 이는 총여학생회 내용과 체계 전체를 새롭게 재규정 해내는 문제와도 맞물린다.

대학사회의 성차별과 성비 불균형에 의한 남성중심의 문화는 여성적 가치나, 여성의 사적인 경험들을 사소한 것 내지 일부 할 일없이 시비거는 여학생들의 불평어린 뉘드리정도로 간주했었다. 이런 대학사회에 총여학생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성차별의 존재인식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총여학생회의 활동방향은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총여학생회의 활동방향과 내용은 앞서 서술했었던 여성주의에 기반한 일상의 정치와 여성권의 확보이며, 체계에 대한 고민은 '여성주의적'이라는 해명되지 않은 새로운 가치에서 출발한다. 여성주의라 함은 남성

적인 가치, 즉 수직적, 이성적, 효율성, 위계, 서열에 대항하는 문제설정이고 이의 재구성은 수평적인 그리고 화합, 민주적, 공존, 자치에 대한 의미를 담는다.

하기에 학생회라는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체계, 독점적인 권력구조(재정, 공간, 정치영역)를 다양한 자치공간, 학회, 소모임 등과 평등한 소통관계로 재편성하고, 학생사회의 흐름을 자치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여학우들과의 소통과 자치흐름의 형성. 그 연장선상에서 총여학생회의 체계에 대한 단상들이 고려될 수 있겠다.

총여학생회 제도개혁 포럼 및 평의회

총여학생회의 회체계는 단위 학생회의 여학생위원회나, 여학생회의 의사수렴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학생회 회체계의 존립 또한 유명무실하고, 총여학생회를 제외한 (단위 학생회에 소속(?)되어있는) 여학생회는 의대와 화생공에 있는 여학생위원회 외에는 단위 여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단위 여학생 회를 통한 여학우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의 구조 또한도 한계적이고 아주대 내에 확보되어 있지 않은 회 체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오히려 소모적일지 모른다. 회체계의 한계에 대한 보완과 여학우 스스로의 자치흐름을 만들기 위한 '총여학생회 제도 개혁 포럼' 내지 '평의회운동'은 권력위임의 형태의 학생회 사업방식을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여학우들의 의사를 반영, 수렴, 교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일회적인 설문지 사업방식이 아니라, 총여학생회 사업과 운영의 투명성, 개입의 자율성등을 기조로 한 포럼 구성, 평의회의 구성은 6대 총여학생회에서 실험적으로 모색해볼 만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과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평의회 위원을 구성하거나 시기적인 총여학생회 사업의 모니터링의 방식을 제안할 수 있겠다.

여성주의적 함의

수평적인

그리고 화합, 민주적, 공존,

자치에 대한 의미를 담는다.

여성운동단위와의 연대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 활성화 및 여성연대 네트워크의 실현

99년 5대 총여학생회를 시작으로 한 다양한 그리고 일상적인 여성운동 단위와의 연대는 많은 성과물과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었다. 학내 외를 구분 짓지 않는 다양한 여성운동단위 네트워크 망 확보, 여성주의 연대는 사안별 연대를 뛰어넘는 일상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지역-경기남부-여성연대 모임의 활성화와 학내 여학생 위원회, 여성주의 모임, 여학생회의 네트워크 망을 구성하고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통신망 확보와 모임의 안정화를 기본 축으로 한다.

자치와 민주주의로

반란신호

성폭력 학칙 제 재정을 요구한다.



9년 한해 우리학교에서는 성폭력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성폭력의 예방이나 근절과는 거리가 먼 '성폭력 학칙'이 갑자기 제정되는 바람에 총여학생회에서 긴 시간동안 새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야 했고, 가을에는 성폭력 근절주간을 선포하여 성폭력 체험 동굴과 같은 행사를 통해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학교 밖에서는 올 7월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에서 성폭력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은 '남녀차별 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여 화제가 되었다.

안팎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성폭력이란 말이 이제 지겹다. 도대체 우리학교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난다고 그러는가! 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업시간에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술자리에서 술은 여자가 따라야 기분이 난다는 선배의 말이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이거야 뭐 달라진 게 없잖아!"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여성, 남성

혹은 그 누구도 될 수 있으며 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여성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은 그것이 여성전체 집단의 발전을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하철 속에서 몰래 몸을 더듬는 아저씨들은 우리를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우리는 자신을 만족시켜줄 성적인 '무엇'일 뿐이다. 내가 노래를 잘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상관이 없다. 성차별이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얻어맞고, 손발이 묶이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여자는 시집이나 가라", "여자는 얼굴만 예쁘면 된다"는 말에는 각각의 특기와 재주가 다른 우리 개인에 대한 인간적 평가가 들어있지 않다. 그저 우리는 성으로 묶인 '무엇'일 뿐이다. 이러한 말은 우리를 끝없이 좌절하게 만들어 똑같은 돈내고 학교에 들어와서도 (혹은 장학금을 받고 들어와서도)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며, 다재다능한 많은 여학생들이 가사 한 과목에만 전념하도록 만들곤 한다.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 그 '무엇'(성욕을 채워줄 대상, 나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밥하고 빨래 해 줄 대상, 그 외 다수)으로 보는 사회의 시선은 뒷골목에서 만난 힘센 아저씨보다도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사고가 필요하며, 성차별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폭력 학칙 재 제정

성희롱-유기정학, 성추행-무기정학, 강간-퇴학이라고 제정되어 있는 우리학교의 학칙은 너무나도 처벌중심이다.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된 황당한 규정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쫓아내기만 하면 성폭력이 사라질까?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가 성폭력인지를 판단한다는 내용도 없는 위의 학칙은 학교에게 성폭력 근절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해 보게 한다. 통큰웃음 총여학생회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재제정을 요구할 것이다. 몇몇 학교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학칙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의지를 담은, 성폭력 근절을 향한 의지가 담긴 학칙을 만들자!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신입생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올해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규제에 관한 시행안에 의하면 학교는 성폭력 상담소와 한해 2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물론 상담원도 없는 다른 학교와 달리 우리학교는 학생상담소 내에 성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다. 통큰웃음 총여학생회는 성폭력 상담소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담소가 보다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대학생활과 진로'와 같은 강의 시간을 통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에 요구하고, 특강을 통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회 성폭력 근절 주간과 성폭력 공청회 - "성 토해내기" 개최

2회째 계속된 성폭력 근절주간 행사를 이어나가며 내년에는 공청회 형식으로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 활발하고 올바른 성 담론이 형성되도록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반란심호 켜

배워서 남준다?

-여성교육과 여성학에 대한 단상

여성학 수업을 들으려고 생각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의 성적 차별에 대한 관심 높은 비판을 나눌 수 있고,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알아보는 것에 기꺼이 한시간을 투자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강의를 신청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학교의 여성학 수업은 150여명이 넘는 인원수, 몇 시간 안 되는 강의 시간과 다양하지 못한 강의진으로 인하여 그냥 학점 때우기 식의 수업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학점 때우기 식의 강의를 거부한다.

여성학 수업의 질 향상 요구

여성학 강의는 실천학문으로서 특정지식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여성들의 일상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억압적 조건을 인식

하고 이러한 모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실행되고 실험되어야 하는,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시각, 활발한 토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강이다. 그러나 우리학교 여성학 강의의 경우 기존의 대학강의가 갖는 일회적이고 수동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하려는 긍정적인 시도가 개인적인 강사의 노력이나 헌신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학교측의 지지, 지원을 통해 여성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성 해방적인 여성학 강의로의 질적 향상을 요구한다. 강의 수강 인원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강의수와 여성학 전공 교수를 늘려 학생들에게 다양한 여성주의로의 접근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상의 여성학 자료 공유

총여학생회가 그 동안 수집하여 가지고 있는 여성학에 관련된 자료를 학교 네트워크상에 공유하여, 보다 많은 학우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자료를 불편함 없이 사용할 뿐 아니라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성문화 창출,

반란선호

대학의 공간과 문화를 재구성하자!



사회의 놀이문화란 단지 놀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회전반에 걸친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삶이 녹아있는, 그 사회 모습을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사회를 한번 돌아보자. 현재 대학가의 놀이문화의 대부분이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들을 위한 여성의 문화는 부재한 상황이다. 아주대라는 공간도 이러한 사회와 별다른바 없다. 여대생들은 과연 어떤 문화행사에 주축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대동제때는 스타크나 칠권만을 큰 행사처럼 여기고, 각 학부별 체육대회도 남학우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축구, 농구가 주종목이기에 여학우들은 구색맞추기로 피구나 응원정도에 겨우 참여하는 것이 아주대 여학우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아주대에 여성들만의 문화가 따로 필요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당연히 "yes!!"다. 아주대에서 여성문화 창출을 통해 공간과 문화를 재구성해보자.

여학우 체육대회 개최

여학우들에게는 아직도 체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생경함이 너무나 강하다. 체육대회라고 하면 웬지 굳어진 몸을 부여잡고 울고 싶어하는 우리 여학우들에게 한판의 놀이판을 준비하고 싶다. 우리가 처음부터 못했나요? 다 큰 여자가 밖에서 뛰면 안된다고 말리니까 못하지.. 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적 '어린 남성'들의 온갖 음해에도 꾀꿉 지켜온 전통의 고무줄 놀이, 아직도 유연하다 림보, 피튀기는 서바이벌 물총 게임으로 우리 여학우들의 체육대회를 신남과 자신감으로 이 아주대 공간 안에 만들어보자.

여성문화축제

지금까지의 문화축제가 그냥 구경만 하는 행사였다면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문화축제를 해보자. 1년 동안 여학우들이 소모임등에서 열심히 준비해왔던 활동들을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멋지게 보여주자. 우리가 공연하는 연극, 우리가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밴드, 우리가 만들어 본 영화, 그 모든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보자. 아향을 라카페로 만들어보는건 어떨까? 혹은 테크노 댄스클럽은 어때? 모든 기획과 구성을 여성주의로 풀어내 보는 것이다. 이제 성별, 나이, 외모, 학력 구분없는 평등한 축제를 꿈꾼다. 이제 여학우들이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것에든 발을 디뎌보는 것이며, 그것이 안되면 축제의 자리에서 얼굴에 철판깔고 신나게 놀 준비를 하는 것만 남았다.

다양한 소모임 지원

문화는 만들자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닥부터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사회를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시작해보자. 누구라도 어떤 모임이라도 좋다. 여성취업준비를 위한 스터디 모임도 좋고 바자회나 벼룩시장을 주최하는 모임도 좋다. 여성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이나, 여성밴드는 어떨까? 톡톡웃음 총여학생회는 다양한 여성의 소모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드러머가 되기 쉽지 않을텐데, 주인공이 여자인 연극을 해 보고 싶은데..라는 아쉬움을 아쉬움에만 둔 친구들아, 이제 다 모아자! 총여가 도와준다!!!

여성취업, 여성실업, 대안없는 질문들

'그 많은 여대생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업하면 과연 취직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열심히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대생을 뽑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굳이 성별을 가려서 뽑는다고 명시하진 않지만, 남성에게 군복무 가산점으로 준다던가, 면접시 여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여성취업의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 또한 신체조건, 외모 등이 여성 취업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조건보다도 우선된다.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의 주변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는 말로 실업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고 있다.

더 이상 자격증, 토익 등 취업준비와 눈높이를 낮추고 하향취업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취업 준비과정에서 겪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겪게되는 수많은 억압을 정확히 인식해야한다. 현재 실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다. 성차별적인 고용을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학교당국과 국가가 담보해야 할 몫이다.

운 좋은 소수가 되리라는 환상을 깨고,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통해 몇 안되는 자리를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자리를 넓히라고 함께 외쳐야 할 것이다.

아주대 여학우들의 실업실태조사

얼마나 많은 여학우들이 취업을 원하며, 또 어떤 구직과정에서의 차별을 겪고 있는 지, 어떤 사회진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그후 학교의 취업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다.

취업박람회 시 기업의 여학생 구직 비율과 구직 여학생 비율 일치

매년 교내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에서 대부분 기업의 여성 구인 비율이 구직을 원하는 여학생에 비해 낮았다. 여성들은 구직하기 이전부터 좌절을 경험하고 구직을 미리 포기해 버리거나 하향취업을 하게된다. 고용상

의 평등과 여성들의 사회진출기회의 확대하기 위해, 사회진출센터와 학생처를 중심으로 한 학교당국이 취업박람회 시 여학생구직인원과 구인기업간의 비율을 일치시키도록 강제해 내어야 한다

취업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 학교차원의 항의

여학우들은 분명히 대학의 구성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교당국이 담보해야할 공공영역인 여학우들의 취업이, 기업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으로 무산되는데 대한 문제제기를 전혀하고 있지 않다. 고용상에서의 군가산제와 가시 혹은 비가시적으로 여성고용을 배제하는 기업에 대해 학교 당국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취업사이트 개설 요구

학교의 취업정책은 여학우들의 현실적 욕구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소수만 걸러내는 국가, 기업의 취업정책이 그대로 반영된다. 여학우들은 학내에서 원하는 구직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국가 혹은 각 기업과의 링크가 가능하고 자신을 알릴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진 사이트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이트를 굳이 여학우만을 위해 개설하라고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일안에 알아볼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다.

반란신호 여성 복지!



간은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이며 정치구조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미 남성중심적인 대학학은 남성중심적 공간이다.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대학공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단지 공간 속에서 여성의 권리찾기를 넘어서 수직적으로 위계서열화되어 배치된 구조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공간과 문화는 기본적으로 대학생활의 환경인 복지에서부터 출발한다. 아직까지도 제기되는 학내 복지문제, 여학우들을 위한 학교측의

시설과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고, 여학생처는 설립되어 있지도 않다. 여성들을 위한 복지, 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상적으로 벌여내야 할 총여학생회의 과제이다.

여학우들의 전용 체육시설 마련

학교 운동장이나 족구장 혹은 농구대에서 땀흘리며 뛰는 여학우들을 본 적이 있는가? 대다수의 여학우들이 운동이나 놀이를 하고 싶어도, 이미 그 공간이 남성만의 공간이 되어버려서 혹은 도구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도 배드민턴 혹은 고무줄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친구들과 할 수 있게 하자. 공 간 확보도 총여가 해준다. 놀고 싶은데 같이 놀 사람이 없다면 같이 놀아줄 사람도 준비되어 있다. 아~~~~자 우리 이제 한번 뛰어보자.

생리대 자원기 시설 보수, 생리대 무상공급

한달에 한번씩 찾아오는 마술.. 하지만 그 마술을 하는 동안 우리의 지갑은 너무나도 얇아진다. 배 아픈것도 아픈거지만 너무나 비싼 생리대, 아픈배를 잊게 한다.

사회구성원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생리는 한달에 피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여성은 국가에게, 기꺼이 생리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물론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급할때 무상으로 총여에서 공급할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아닌 당신 혼자도 아닌 우리 함께 일상에서 시작하는 통쾌한 반란 6대 총여학생회 선본이 같이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17일과 18일이구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학생증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면 하실수 있습니다.

다산관. 율곡관. 성호관. 의대. 중앙대자보관앞에서 진행되구요.. 혼자오시지 말구 친구랑 같이 오세요!!!

뭐가 문제야?

